

로이 포터 지음, 최파일 옮김, 『근대 세계의 창조: 영국 계몽주의의 숨겨진 이야기』 (교유서가, 2020), 1120쪽. [원서: Roy Porter, *The Creation of the Modern World: The Untold Story of the British Enlightenment*.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0. 727 pp.]

정원†

지난 2000년에 출판되었던 로이 포터(Roy Porter)의 *The Creation of the Modern World: The Untold Story of the British Enlightenment*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로이 포터는 일반 역사학계에서 뿐만 아니라 과학사 학계에서도 『케임브리지 의학사(*The Cambridge History of Medicine*)』, 『계몽주의(*The Enlightenment*)』 등의 저작을 통해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의학사, 18세기 과학사의 전문가이다. 저자가 밝힌 대로 이번에 번역되어 출간된 책은 그가 처음 강의를 하던 1974년부터 구상하기 시작해 25년의 기간을 걸쳐 완성된 역작이다.

『근대 세계의 창조』에서 포터가 던지는 질문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역사학계, 혹은 과학사 학계에서 회피해왔던 물음이다. 포터는 책의 앞부분에서 볼테르(Voltaire, 1694-1778), 디드로(Denis Diderot, 1713-1784) 등 필로조프들의 칭송을 통해, 그리로 그 유명한 『백과전서(*Encyclopédie*)』에 서술된 영국에 대한 존경심 표출을 통해 엿볼 수 있는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영국에 대한 흥미를 지적한다. 물론 볼테르가 영국에서의 망명 생활 중 뉴턴(Isaac Newton, 1643-1727)의 장례식 등의 사건을 경험하며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켰다는 점은 과학사 개론서에도 서술되어 있을 정도로 과학사 학자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포터는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끌어낸다. 왜 프랑스 계몽사상가들 자신이 영국 사회를 프랑스를 개혁하

---

† 전북대학교, jwon@jbnu.ac.kr

는 모델로 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가들은 계몽주의에 대한 논의에서 영국을 배제해 왔는가? 프랑스 계몽사상가들이 칭송하고 있던 사회라면 영국에서도 계몽주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다고 보아야 함이 타당한 가정이 아닐까? 포터의 책은 이 당연하지만 회피되어 왔던 질문에 대해 18세기 영국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며 긍정적인 답을 이끌어 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포터의 책에 대해 불평을 잠시 늘어놓자면 책이 너무 무겁고 묵직하다. 우선은 물리적으로 너무 무겁고 묵직하다. 700쪽이 넘는 본문의 분량도 그 러하거나와 350쪽 분량의 미주와 참고문헌은 이 책에 대한 도전을 시작하기도 전에 부담감을 준다. 일단 도전하기로 마음먹은 후에도 무거움과 묵직함에 대한 부담감은 내용 면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우선 계몽주의라는 결코 쉽게 설명되기 어려운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도 그러하거나와 포터가 계속해서 주목하여 설명하는 로크(John Locke, 1632-1704), 흄(David Hume, 1711-1776), 울스턴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 1759-1797) 등의 생각과 주장에 대한 내용도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5장 정도까지 책을 읽는 동안 계속해서 앞 장에서 나왔던 로크와 흄에 대한 설명이 이번 장 내용하고는 어떻게 관련되는 것인가를 이해 하기 위해 앞 내용을 뒤적여야 했다. 차라리 앞부분에서 로크와 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이후 내용을 서술해 주지 왜 이리 한 사람의 생각을 여러 장에 펼쳐 놓아 독자를 힘들게 하는가에 대한 불만이 생겼다.

내용의 무거움과 묵직함에 대한 불만이 쌓여갈 때 즈음 6장에서 드디어 친숙한 주제인 과학 문화에 대한 내용이 등장한다. 뉴턴주의와 그와 관련된 클라크(Samuel Clarke, 1675-1729), 드자글리에(John Theophilus Desaguliers, 1683-1744), 포프(Alexander Pope, 1688-1744) 등의 영향과 행적을 추적하는 6장은 오히려 조금은 밋밋할 정도로 쉽게 읽혔다. 왜 6장 역시 복잡한 영국의 과학 문화를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쉬운 독서가 가능했을까? 아마도 나름 서양 과학사의 전공자로서 배경 지식이 쌓여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러했다. 앞부분 독서가 어려웠던 것은 로크, 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때로는 모순적이기도 하고 당연히 생각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과학자를 바라보는 방식과 달리 영국 사상가들의 논의를 하나의 정합적인 논리 체계로 이해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제야 이 책의 무거움과 묵직함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이 책은 배경 독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책이다. 또 하나. 이 책은 영국의 계몽주의가 어떠한 주장, 체계를 제안했든지 누구의

사상이 큰 영향을 주었다든지 등의 내용을 설명하려는 책이 아니다.

다행히도 6장 정도에서 책의 방향성에 대한 갈피가 잡히니 그 이후 독서 과정에서 무거움에 대한 부담감이 절로 감탄사로 바뀌기 시작했다. 종교, 경제, 여성, 정신, 개혁, 진보, 교육 등의 심각한 주제는 물론이고, 양식, 세속화, 자연, 문화 등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주제를 다루는 각 장의 내용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정신없고 체계 없음”이었다. 비슷한 생각을 공유했던 사람들 간에도 의회제, 가톨릭, 국교회에 대한 생각이 정반대였던 것은 물론이고, 근대화와 진보를 내세웠던 사람들이 여성의 덕목은 집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상류층의 문화와 노동자층의 삶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으며, 자연이 보호할 대상인가 개발의 대상인가에 대한 생각도 달랐다. 한 주제에 대한 논의에서 다른 주제에 대한 토론이 불쑥불쑥 끼어드는 상황은 수없이 많이 일어났다. 저자 포터가 『근대 세계의 창조』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영국 계몽주의의 특징은 바로 이러한 “정신없고 체계없어” 보이는 시대였다는 점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상호 비판, 대화, 토론이 이루어지는 사회였다는 점이었다.

포터는 18세기 영국 사회에서 다양한 주제 및 관심에 대해 얼마나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 의견 개진에는 젠틀맨, 주교, 학자, 사상가, 문화가, 여성이 동참했다. 의견 개진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18세기 영국 인들은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 때로는 직접 대화를 통해서, 때로는 인쇄 매체를 통해서 대화 및 토론을 이어나갔다. 포터의 저작에서 각 장의 주제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거론되는 장소와 매체는 커피하우스와 『태틀러(Tatler)』, 『스펙테이터(The Spectator)』 등의 인쇄물이다.

왕정복고기에 처음 영국에 등장한 커피하우스는 18세기 중반이 되면 런던에만 500여 개의 점포가 성업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끈 새로운 토론의 공간이었다. 증권거래업자, 보험업자 등이 정보를 교환하던 커피하우스에 젠틀맨, 성직자 등 상류층이 방문하게 되면서 그 수가 크게 늘어났고, 18세기 중반이 되면 일반 시민 계층까지도 방문이 가능해졌다. 이곳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졌고, 그 대화 내용은 특정한 저자들의 저술 속에 반영되었다. 이렇게 출판된 저술들은 다시 커피하우스 방문객들의 토론 주제가 되었고, 후속 저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커피하우스가 직접 대면에 의한 대화와 토론을 촉발시켰다면 대중적 인쇄물

들은 이 토론의 청중과 참여자를 극적으로 확대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수다쟁이 『태틀러』와 관찰자 『스펙테이터』는 엄청난 발행 부수를 자랑하며, 당시 영국에서 논의되고 있던 거의 모든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실어 날랐다. 이 정보지의 명칭에서 드러나듯 발행자와 편집자들은 각종 주제에 대한 당시의 정보와 의견을 관심 있는 관찰자들에게 전달했으며, 그 반응으로 나온 다양한 수다를 다시 소개했다. 이 관찰자들과 수다쟁이에는 상류층, 노동자 계층, 그리고 여성들도 포함되었다. 포터는 커피하우스의 손님들, 정보지의 구독자들을 통해 18세기 영국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에 대한 대화와 토론이 가능했던 점, 그리고 이 결과가 다양한 저술 활동으로 이어진 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회 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며 결코 단일하지는 않지만 무언가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공감대가 전반적으로 형성되었던 점을 영국 계몽주의의 핵심으로 꼽고 있다.

포터의 책이 18세기 영국의 계몽주의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물론이고 과학사 학자들이 참고할 만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지적해야 할 것 같다. 먼저 커피하우스와 『스펙테이터』에서 논의의 주제가 되었던 것 중 하나는 당시의 과학이었다. 그렇기에 커피하우스와 대중지는 어떻게 영국에 켄틀랜드 중심의 과학 문화가 형성되었는지, 그 결과는 또 어떻게 일반 대중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었는지를 밝혀 줄 수 있는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덧붙여서 포터의 책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두 인물의 활발한 지적 활동을 다시 들여다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들은 조지프 프리스틀리(Joseph Priestley, 1733-1804)와 이래즈머스 다윈(Erasmus Darwin, 1731-1802)이다. 포터에 의해 설명되고 있는 산소 발견의 주요 인물이자 프랑스 대혁명의 옹호자 닥터 플로지스톤 프리스틀리는 18세기 영국 토론의 장 중심부에서 적극적으로 활약했던 인물이었다. 찰스 다윈의 할아버지이자 루나 협회(Lunar Society)의 회원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 이래즈머스 다윈은 어떠한가. 그 역시 정치, 종교, 여성, 의학, 자연사, 그리고 진화에 대한 다양한 저술 활동을 통해 당시의 토론에서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던 인물이었다. 이 두 인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만으로도 과학사 학자라면 기꺼이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

포터의 저작은 명예혁명부터 빅토리아 시대 직전까지를 아우르는 장기 18세기 영국의 계몽주의의 “숨겨진”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저자가 부제에서 밝힌

“숨겨진” 이야기란 이성, 합리성, 무지, 편견, 개혁, 전통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대화, 그리고 그 확산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18세기 영국은 당시에 “계몽주의”라는 용어를 별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계몽”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 초에 “최고의 합리성이란 자기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이는 것이다”라고 말하던 시대에서 타인의 의견을 인정하며 토론이 가능한 사회로의 변모를 계몽된 사회로의 변화로 설명하는 포터의 주장을 지나친 평가라고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특히 이미 “계몽”되었다고 자부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떠올려 볼 때 과연 우리는 계몽된 것이 맞는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떠올리게 된 것 또한 이 책 덕분이었다. 마지막으로 번역가의 노고를 칭송해야겠다. 역자는 훌륭한 번역을 통해 이 방대한 저서의 복잡한 내용을 매끄럽게 옮겼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통해 독자에게 친절한 길잡이 역할까지 해 주었다. 저자 포터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야 한다면 같은 찬사를 번역가에게도 보내야 할 것이다.